

No.87

Japan Weekly Digest

2011. 5. 21. ~ 5. 27.

□ 금주의 이슈

-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, 재난대응 협력에 합의
- 대지진영향으로 4월 무역수지적자 최대 규모
- 중국정부, 처음으로 일본에 投資促進団 파견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경산대신, 한국·중국 경제장관과 회담
- 태양광발전시장, 2030년 15배 확대계획 발표
- 여름철전력, 15%삭감 대책발표

□ 일본기업전략

- HOYA·르네사스, 리스크 분산을 위해 해외생산 검토
- 도시바, 환경·인프라기업 M&A를 위해 7000억엔 조성
- 소프트뱅크, 태양광발전 사업구상 발표

□ 보고서 리뷰

- 한일공동 드라마제작펀드 조성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, 재난대응 협력에 합의

- 한중일 정상은 22일, 동일본 대지진 재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뜬소문 피해방지와 재난협력강화에 합의
- 또한, △지진복구와 재해지원 △원자력 안전강화에 관한 연계를 담은 정상회담 선언을 발표
- 일본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서 한중일FTA 촉진을 검토하고, 지진으로 크게 감소한 일본의 관광객 유치 등, 인적교류에 대해서도 3개국 공동으로 대응
 - * 한중일 FTA 관련, 3개국 산관학 공동연구를 1년 앞당기는데 합의
- 기타, 원자력에너지 안전대책 전문가협의로 추진할 방침

○ 대지진영향으로 4월 무역수지적자 최대 규모

- 재무성은 25일, 4월 무역수지가 4637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
- 동일본 대지진으로 공급망이 끊어지고, 자동차 수출이 크게 감소한 것과 자원 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이 원인
 - * 4월 무역적자는 오일쇼크로 수입액수가 대폭 증가한 1980년 이래 31년만
- 수출액은 12.5%감소한 5조1557억엔으로 2개월 연속감소. 미국대상 자동차수출이 73.5% 감소하고, 중국대상도 69.2% 감소하는 등 일제히 감소

○ 중국정부, 처음으로 일본에 投資促進團 파견

-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22일, 한중일 경제계주최 회의에서 “올해 하반기, 일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상담회를 개최한다.”고 발표
- 同총리는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부흥지원과 일중간 무역투자 촉진을 위해 연내 (11년 하반기)에 투자촉진단을 파견하겠다는 의향표명
- 日경단련에 의하면, 중국정부에 의한 투자사절단 파견은 이번이 처음. 원자바오 총리는 피해지역을 비롯해 일본각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고, 지진복구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향인 것으로 분석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경산대신, 한국·중국 경제장관과 회담

- 가이에다 경제산업대신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, 21일 경산성에서 한국, 중국 경제장관과 잇따라 회담
-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과 가진 회담에서는 원전사고와 관련, 정보제공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하고, 앞으로 한일FTA교섭 재개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
- 중국의 천더밍 상무상과의 회담에서는 “희토류 가격급등에 대처해 달라.” 고 요청. 이에 천더밍 상무상은 “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 고 언급

○ 태양광발전시장, 2030년 15배 확대계획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23일, 태양광발전시장을 2030년까지 지금의 15배로 확대시키기 위한 「선라이즈 계획」을 발표
-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고려, **태양광·풍력·바이오매스(생물자원)등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**
- 태양광발전기술의 발전과 시장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발전비용을 현재의 약 6분의 1 수준으로 줄여, 화력발전과 비슷한 정도로 하겠다는 목표
- 또, 태양전지를 설치할 수 있는 모든 지붕에 붙임으로써, 현재 263만KW 수준의 설비용량을 2030년 15배로 확대시킨다는 방침

○ 여름철전력, 15%삭감 대책발표

- 경제산업성은 원전사고에 따른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으로서, 7월1일부터 사용제한을 실시한다고 발표
- 공장 등 계약전력 500KW 이상의 대량수요처에 대해, 전년 대비 최대전력의 15% 삭감을 요구
- * 도쿄전력 관내: 7월1일~9월22일 9시부터 20시, 도호쿠전력 관내: 7월1일~9월9일 9시부터 20시. 사용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
- 응급환자의 치료를 행하는 의료시설, 철도 등은 전기의 사용제한이 없는 ‘적용 제외’로 하고, 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복구에 필요한 시설로, 경우에 따라 삭감을 10%, 5%, 0%의 3단계를 적용

□ 일본기업전략

○ HOYA·르네사스, 리스크 분산을 위해 해외생산 검토

- HOYA, 르네사스 등의 일본기업들이 리스크분산을 위해 국내에 집중되어 있는 고기능부품들의 해외생산을 검토
- HOYA는 세계 점유율80%의 반도체 생산부품을 처음으로 해외에서 생산키로 했고, 르네사스는 미국, 대만에서의 위탁생산에 착수
- 그동안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었으나, 대지진 발생 이후, 리스크 분산을 위한 생산거점 이전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 요인
- 이외에 리코는 컬러인쇄복합기용 신형토너를美거점에서 생산하기로함(신형토너는 현재 100% 일본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, 세계시장 80%를 점유)

○ 도시바, 환경·인프라기업 M&A를 위해 7000억엔 조성

- 도시바는 2011~2013년, 환경·인프라부문에 있어서의 신속한 M&A를 위해 7000억엔의 특별자금을 조성
- 자금조성을 통해 지진피해 복구수요와 신흥국의 사회 인프라시장수요에 대응
- 특히 환경·에너지 분야에 중점배분, 설비투자·연구개발 등 투자금액은 과거 최대인 3조엔 정도가 될 전망 (08~10년도에 비해 50% 증가)
- 대지진 이후에 중장기계획을 수정, 원자력 대체 환경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(23일, 한국 유니슨과 제휴하여 풍력발전 사업에 진출함)

○ 소프트뱅크, 태양광발전 사업구상 발표

- 소프트뱅크(사장: 손정의)는 25일, 지방자치체와 공동으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의 보급을 위한 「자연에너지협의회」를 7월 설립한다고 발표
- 우선 1000억엔 정도를 투자, 자치단체등과 공동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인 「메가 솔라」의 건설을 진척시킬 방침
- 일반가정 5000세대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2만KW 규모를 중심으로, 전국 10곳에서 건설 예정(매출8조엔 목표)

□ 보고서 리뷰

한일공동 드라마제작펀드 조성

- ⇒ 한일 미디어 관련기업과 한국 공공기관이 아시아 진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
- ⇒ 일본을 무대로 한 한국 드라마나, 한일에 중국을 포함한 드라마를 공동 제작하고, 제작드라마의 해외(아시아) 진출을 지원할 방침

□ 한일드라마 제작펀드 설립 배경

- 한국 콘텐츠산업의 높은 경쟁력이 펀드 설립 배경으로 작용
 - 한국정부에서 영상문화 해외전개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, **2002년에는 방송프로 수출이 수입을 상회하고, 2005년에는 일본의 수출액을 추월**
 - 일본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한국 콘텐츠육성 메커니즘을 활용하여, 아시아 시장을 공동 개척하는 것이 목적 (일본은 **경제산업성에 Cool Japan실을 설립했으나, 해외개척펀드는 아직 조성하지 못하고 있음**)

□ 드라마펀드 스킴

- 일본을 무대로 한 한국 드라마나, 한일에 중국을 가미한 드라마를 공동 제작하고, 제작 드라마의 아시아 및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
 - 제작된 드라마 저작권은 펀드와 제작사가 소유. 방송국 방영, DVD판매 등의 수익으로 투자 제작비를 회수하는 시스템임
 - * **드라마제작에 특화한 국제콘텐츠 펀드로는 처음**
- 출자구조
 - 한국벤처투자공사가 150억원, LG전자 자회사인 LG U+, SM엔터테인먼트 등이 10억~70억원을 투자(일본은 드라마제작사인 아시아콘텐츠센터가 70억원을 투자)

□ 향후 계획

- 펀드는 3년간의 운영을 예정하고 있고, 연간 3~5개 드라마에 출자할 계획임 출자액은 드라마 편당 총제작비용의 40%정도 예정
 - 제1탄으로 한국 인기드라마 「풀 하우스」 속편에 대한 출자가 결정
- 이외에 △한중일 공동제작 드라마 △일본을 무대로 한 한국드라마 제작도 논의되고 있음

【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】

- (1) 『동북대지진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5월24일
*출처: <http://www.mizuho-ri.co.jp/membership/enquete/pdf/enquete201105.pdf>
- (2) 『월례경제보고』 내각부, 5월25일
*출처: <http://www5.cao.go.jp/keizai3/2011/0524getsurei/main.pdf>
- (3) 『중국에서 성공한 중소기업사례』 JETRO, 5월25일
*출처: <http://www.jetro.go.jp/jfile/report/07000631/houkokusyo.pdf.pdf>
- (4) 『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경제』 일본은행, 5월26일
*출처: http://www3.boj.or.jp/fukui/030_kouen/data/shinsaigo.pdf
- (5) 『기술로 이긴 일본기업이 왜 사업에서 지는 것인가?』 교토은행, 5월26일
*출처: <http://www.kyotobank.co.jp/houjin/report/pdf/special201105.pdf>
- (6) 『일본의 격차사회』 일본생명 기초연구소, 5월26일
*출처: <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report/2011/06/repo1106-2.pdf>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5월 23일(월)	○ 중의원 동북대지진 부흥특별위원회 개최 ○ 3월 경기동행지수 발표(내각부) ○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집중검토회의 개최
5월 24일(화)	○ 5월 월례 경제보고 발표(내각부)
5월 25일(수)	○ 일·프랑스 정상회담(파리) ○ 간총리, OECD 50주년 기념행사 참석 ○ 4월 무역통계 발표(재무성)
5월 26일(목)	○ G8 정상회담(파리, 27일까지) ○ 파나소닉 사장, '스마트타운'구상 설명회 개최 ○ 4월 기업가격지수 발표(일본은행)
5월 27일(금)	○ 4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(총무성) ○ 4월 상업판매통계 발표(경산성) *28일: 한중일 문화관광장관 회의 개최(강원도 평창)